

- 주요 뉴스: 미국 정부, 내년부터 본격적인 금융부문 규제 강화에 나설 가능성
 - 미국 11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전월 대비 상승률 둔화
 - 일본 11월 산업생산, 전월비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최고치. 공급 병목 완화 장후
 -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신흥국 주가는 내년 하반기 상승 예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오미크론 관련 불확실성 등이 영향
 주가 하락[-0.1%], 달러화 강세[+0.1%], 금리 강보합[+0.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오미크론 확산과 빅테크주 약세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지수는 내년 연초 효과 기대 등으로 0.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3월 금리인상 전망 등이 작용
 유로화가치는 0.2% 하락, 엔화는 강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 등이 반영
 독일은 경제둔화 우려 완화 등으로 보합 마감

※ 원/달러 1M NDF환율(1188.6원, -0.0원) 약보합, 한국 CDS 보합

		12/28일	12/27일	전일대비			12/28일	12/2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786.4	4,791.2	-0.10%	국채 금리 10y	미국	1.48%	1.48%	0bp
	유럽	488.50	485.49	0.62%		독일	-0.24%	-0.24%	0bp
	중국	3,630.1	3,616.0	0.39%	CDS 5y	한국	21bp	21bp	0bp
	일본	29,069	28,676	1.37%		중국	41bp	41bp	0bp
	한국	3,020.2	2,999.6	0.69%	위험 지표	EMBI+	-	394	-
환율	달러지수	96.16	96.09	0.07%		VIX	17.54	17.68	-0.79%
	유로화	1.1310	1.1328	-0.16%		WTI유	75.98	75.57	0.54%
	엔화	114.82	114.87	0.04%	원자재	구리	442.0	446.5	-1.01%
	위안화	6.3686	6.3710	0.04%		금	1,806.2	1,812.1	-0.33%
	원화	1,188.0	1,186.8	-0.1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정부, 내년부터 본격적인 금융부문 규제 강화에 나설 가능성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금융규제 관련 핵심 인사가 마무리 단계. 이에 내년부터는 이전 보다 강력한 규제가 구체화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 특히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 기업 관련 규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
- 당국은 이미 기존 체제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또한 핀테크 기업의 대출 및 결제업무에 대한 감독이 느슨하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
- 소비자보호금융국(CFPB)의 오픈 बैं킹(조회,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기능을 표준화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 추진으로 은행 간 경쟁 심화가 예상되며, 향후 인수 합병 제도가 은행에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 이에 더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에 기후변화 위험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Raymond James는 금융규제 강화가 아직 시장을 움직이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한계기업의 수,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

- 미국 증시 내 시가총액 상위 3000개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하회하는 기업의 수가 금년 656개로 전년도 756개에서 감소. Russel Investment Group의 Dan Brown은 당국의 경기부양책이 기업의 건전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

■ 미국 11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전월 대비 상승률 둔화

- 같은 달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18.4%로 10월(19.1%) 대비 하락. CoreLogic의 Selma Hepp는 향후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 정부 지원금 감소 전망 등을 고려 시 향후 주택가격 상승률의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인민은행,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리 대출 제공할 계획

- 이강 총재는 해당 조치를 위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언급. 기업의 주주와 지방정부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

■ 일본 재무상, 물가상승이 경제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전망

-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으면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시장도 이와 같은 변화에 반응을 나타낸다고 언급.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제품가격 인상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향후 임금상승률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일본 11월 산업생산, 전월비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최고치. 공급 병목 완화 가능성

- 같은 달 산업생산은 전월비 7.2% 늘어 예상치(4.8%) 상회. 이번 결과는 자동차 부문의 급증(43.1%) 등에 기인. 오키나와 증권의 타쿠지 다이다는 일본 제조업체들을 괴롭혔던 공급 차질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평가

■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신흥국 주가는 내년 하반기 상승 예상

- 모건 스탠리의 Eric Zhang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공급 차질도 완화되면서 신흥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평가. JP모건의 Tai Hui는 완만한 물가상승과 양호한 성장률 등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멕시코 정부, 2023년부터 원유 수출을 중단을 고려. 자국 수요 충족을 우선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자국 내 수요를 먼저 충족시키는 것이 수출보다 중요하다고 발언. 국영 에너지기업 Pemex는 내년 수출 규모를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제시. 다만 대규모 부채를 고려 시 해당 계획의 현실화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

■ 터키 중앙은행, 리라화 예금 장려 조치를 강화

- 은행이 외화를 리라화로 환전하여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면 시중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 다만 이번 발표 이후 리라화의 환율 변화는 제한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2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전월비): 1.1%, 9월(0.9%), 예상치(1.2%)
- 미국 12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16, 11월(11), 예상치(-)

■ 주요 경제 이벤트(12/29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상품 무역수지, 도매재고, 잠정주택판매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2022년 글로벌 증시, 강세장 지속을 위한 여러 과제가 존재 - Financial Times

(Bull market heads into New Year on a shaky foundation)

- 지속되는 코로나 19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MSCI 글로벌 지수는 20%, 북미는 2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이는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한 양호한 경제성장 유도에 기인. 하지만 여러 위험요인으로 향후 긍정적 모멘텀 유지 여부는 불투명
- 최우선으로 백신과 치료제 등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제어가 중요하며, 가계와 기업의 잉여 현금이 소비 및 생산활동으로 연결될 필요. 또한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통제가 중요. 다만 임금상승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구조적 문제가 존재
-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부양책 종료와 긴축 전환 및 채권금리 상승은 증시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아울러 각국의 세금인상 움직임,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등도 주가 상승에 장애물이 될 소지

■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역효과가 더 클 가능성 - 블룸버그

(The U.S. and China Don't Need a Cold War Over Capital)

-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상장한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를 발표하자 중국 당국은 자국기업의 미국 자본 유치를 억제하는 조치를 발표. 이는 중국 증시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중국 증시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의 위험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 이를 고려할 때,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억제보다 핵심기술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 또한 주요 공급망의 해외이전 제한보다 공급망 강화조치가 선행될 필요. 미국 투자자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제가 요구

■ 서구 소비자 기업의 중국 진출, 내수 부진과 정치적 위험을 고려할 필요 - WSJ

(Walmart's China Dilemma is Every Western Company's, Too)

■ 미국 증시, 풋 옵션 거래 증가는 투자자 불안 등이 배경 - Financial Times

(Traders turn to derivatives that protect against US market fall)

■ 미국의 낮은 장기채권 금리, 연준의 저금리 정책에 익숙한 투자자 심리가 반영 - WSJ

(U.S. Treasury Yields Seem Like a One-Way Bet, Until They Aren't)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